

전주 시민 기록물 가치·의미 공유

시, 기록물 수집 공모전 최우수 기록물 '1948년대 유치원 졸업사진'·'1960년대 교생실습 사진' 선정

1948년 전주 중앙유치원 졸업사진과 1960년대 교생의 연구수업 사진이 '제11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평가됐다.



1948년 전주중앙유치원 졸업사진



1960년대 교생실습사진



1982년 전국소년체전 카드섹션 도안

1960년대 교생들의 연구수업 모습을 통해 당시의 학교 교육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사진 속 교생, 학생들, 지도 선생님, 학급풍경 등은 매우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진본성과 활용성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전 공모전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1982년 제12회 전국소년체전 카드섹션 도안 이미지 모음첩'은 전주공실운동장에서 진행된 개막행사의 카드섹션 지휘를 위해 당시 미술교사가 직접 그린 것이다. 개막식 식순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지휘자의 구령에 맞추어 동시에 카드를 올리고 내리기를 262번 하도록 구성된 도안으로 희귀성이 높

은 귀한 자료이다.

또한 '1926년 보통학교 제3학년용 도화첩(그림책)'과 '1956년 초등학교 미술과 글씨본' 등 초등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과서도 다수 수집됐다.

이외에도 공모전에서는 '어린이' 주제의 어린이날과 운동회, 소풍 등 각종 어린이 행사 △말타기와 낙서하기 등 놀이문화 관련 시청각 자료 △개인의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일기 △교과서 △노트 △시험지 △성적표 등을 모아 제출한 일괄자료가 많았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형은 합습과 소방시설 등 보존 설비가 갖춰진 전주시민기록관(덕진구 권천로 264) 수장고에 보관되고, 일부는 오는

12월 전주시민기록관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소중하게 간직해 온 개인의 유산을 도시의 기록으로 남도록 가능한 시민에 대한 예우와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소장자료 기증자 전원에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기증보상금(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민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활용해 그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가을에 떠나는 재즈여행'

29일 객사2길 일원서 '전주 폴링 인 재즈' 공연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깊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거리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9일 짧음의 거리인 전주객사2길(객리단길) 일원에서 '전주 폴링 인 재즈(Jeonju FALLing in Jazz)'를 개최한다.

'가을에 떠나는 재즈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재즈 공연은 지난 6월 개최한 '제1회 전주재즈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한 전주시가 가을철을 맞아 시민과 여행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객리단길에는 3개의 거리 무대가 준비될 예정으로, 거리 무대인 만큼 관객과의 즉흥적인 소통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마칭밴드인 'Tom Tony'와 '정중화밴드' 등 대규모 밴드와 더불어, △색소폰 등 관악기를 중심으로 열연할 'Breath of 5' △박기훈 퀸텟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김홍기+김진환 퍼커시브 유닛' △Organ Trio △집사 △홍지형 Groovin Group 등 8개 팀의 공연이 전주객사2길 곳곳에서 펼쳐진다.

또한 지난 6월 전주재즈페스티벌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던 대규모

브라스밴드의 거리퍼레이드도 진행된다.

시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재즈 공연을 기존 한옥마을에서 객리단길로 확대한 만큼 관광객의 발길을 구도심 전역으로 확장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재즈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인 임인건 재즈피아니스트는 "음악의 도시 전주를 무대로 한 재즈페스티벌은 '우연성'과 '현장감'에 있어서 다른 재즈페스티벌과 매우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 재즈페스티벌이 단독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컨템포러리 재즈를 연주하는 것과 달리 전주의 특징은 거리에서 관객과 재즈의 때를맞추고 흥겨운 만남이 아닐까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해문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매년 가을 'FALLing in Jeonju'를 통해 화제작을 선별해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가을 미니 재즈공연을 통해 올해를 한옥마을 재즈의 열기를 다시 한 번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길 기대"이라며 "전주를 전통적인 국악뿐 아니라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인공지능·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정보공유의 장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블록체인 트렌드 세미나 개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주목받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BC)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정보공유의 장이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신산산업융합지식산업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와 블록체인 트렌드 세미나(2022 AI/BC Tech Trend Concert)'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해당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전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교육 연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틀간 각각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AI 데이(AI Day)'와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BC 데이(Block Chain Day)'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첫날 진행된 'AI 데이'에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중심에 있는 △네이버 클로바(NAVER Clova) 이기창 리더의 '초거대 AI 언어모델의 현재와 미래'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의 '인공지능 기술 트렌

드와 새로운 우리 내일의 삶' △황동주 랩서드 대표의 '농업에 기술과 데이터를 더하다' 등의 주제 강연이 펼쳐졌다.

이어 20일 'BC 데이'에는 △SK텔레콤 정효진 리더의 'Web3, 인터넷 개발의 새로운 시대' △김중환 블로코 대표의 'NFT 2022 트렌드' △팔라 엄준호 테크 리더의 '쉽고 안전한 NFT 거래: 국내 최대 NFT 마켓 팔라스퀘어'를 주제로 각각 국내외의 NFT 사례를 분석·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지역 인공지능·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참

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영로(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내년에도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이 지속되는 만큼 AI와 블록체인 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AI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산, ICT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평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있던 분들의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모두가 예술인' 프로그램 운영

서학동 예술작가와 체험 진행

전주시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19일 서학예술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인영 작가와 함께하는 작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인영 작가는 한국테디베어협회 소속으로 현재 인형 디자인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서학동에 자리잡아 '사과나무테디베어공방'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공방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작家的 작업 공간인 사과나무테디베어공방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들이 사전에 준비된 제작 키트를 활용해 '공정인형'을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정성을 담아 인형 만들기에 집중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이날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수



요일 △한숙 작가 △진창운 작가 △정현진 작가 △김진숙 작가 △박미경 작가 등 서학예술마을 예술인과 함께 작품 만들기를 체험해보는 '모두가 예술인'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시민 모두가 예술인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쉬 쉬듯이 예술 작품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오감(五感)의 도서관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한옥마을 문화탐방·공연체험 가져

국가대표 여행자인 전주한옥마을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은혜)는 19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유아와 보육교직원 등 6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 문화탐방 및 공연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집 유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경기전과 향교, 치명자산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등을 견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꿈 세 마리' 가곡 오페라 공연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이은혜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

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1차, 2차로 나누어 유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즐거운 행사였다"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내에서 생활하던 유아들에게 문화 예술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정읍시지부 지부장 이재연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황토현농협 조합장 김재기
칠보농협 조합장 권혁빈	태인농협 조합장 한상곤	신태인농협 조합장 김성주
삼골농협 조합장 허수중	순정축협 조합장 고창인	정읍원예농협 조합장 이대건